



6일 저녁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FC 아시안컵 2007 대만과의 예선전에서 정조국이 한국의 두번째 골을 헤딩슛으로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베어벡호 골 폭죽... 초가을 밤 수놓다

## 정조국 헤트트릭... 설기현·조재진·김두현 릴레이 축포

### 한국, 아시안컵 축구 예선 대만 8-0 압승

베어벡호 태극전사들이 8골의 화려한 골 폭죽으로 초가을 밤 하늘을 수놓았다. 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6일 오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7 아시안컵 축구 B조 예선 4차전 대만과 홈 경기에서 정조국이 헤트트릭을 작성하고 설기현(2골), 조재진(2골), 김두현이 릴레이 득점포를 쏘아올려 8-0 압승을 거뒀다.

한국은 이로써 3승1무(승점 10)로 B조 선두를 굳게 지켜 아시안컵 본선행 9부 능선을 넘어섰다.

7일 새벽 이란(1승2무)이 시리아(1승1무1패)를 잡을 경우 한국은 다음 달 11일 시리아와 홈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본선에 진출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4위의 약체 대만은 해외파를 총동원한 베어벡호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한국은 대만과 역대전적 15승1무6패를 기록했고 1967년 이후 9연승을 달렸다. 대만을 상대로 1971년 민첸올림픽 예선 8-0 승리와 같은 최다골차 대승이다. 1971년 이후 35년 동안 28득점에 무실점.

조재진-정조국을 투입해, 박지성-설기현을 좌·우

측면에 배치해 공격수 4명을 쓴 베어벡호는 전반 1분 김남일의 35m 중거리슛으로 위협사격을 한 뒤 곧장 골 간치를 벌였다.

포문을 연 주인공은 지난 2일 이란전에서도 선제 골을 뽑아낸 '3호 프리미어리거' 설기현이었다.

설기현은 전반 4분 김남일이 로빙 스푸패스를 찰러주자 페널티지역으로 치고 들어가며 지체없이 오른발 대표로 슈트를 날려 대만의 오른쪽 그물망을 세차게 흔들었다.

이어 1분 뒤에는 송종국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정조국이 받아쫓기 헤딩으로 꽂아넣어 추가골을 뽑았다.

8분 김두현의 원발 터닝슛과 11분 크로스바를 맞춘 조재진의 발리슛, 14분 골대를 스치듯 비껴간 설기현의 헤딩슛이 잇따라 터져 나왔지만 전반 15분 이후에는 한동안 대만의 오프사이드 함정에 걸려 고전했다. 대만은 창시투가 전반 25분에야 첫 슈팅을 시도했다.

답답하던 흐름은 전반 막판 다시 풀렸다. 전반 43분 김두현이 미드필드 좌중간에서 예리한 프리킥을 잡아올리자 설기현이 머리를 돌려 볼의 방향을 바꾸

는 헤딩슛으로 세 번째 골문을 열었다.

전반 인저리타임에는 김두현의 오른쪽 코너킥을 정조국이 헤딩으로 꽂아넣어 순식간에 스코어를 4-0으로 벌렸다.

후반 4분 정조국의 다이빙 헤딩슛으로 파상공세를 재개한 한국은 후반 9분 박지성, 이영표를 빼고 최성국, 장학영을 투입해 숨을 골랐다.

후반 19분 골문이 따르지 않던 조재진에게도 기회가 왔다. 조재진은 설기현이 오른쪽 측면을 뚫어 땅볼 크로스를 자로 켄 뒤 물러주자 원발로 가볍게 밀어넣어 다섯 번째 골을 터뜨렸다. 설기현 대신 백지훈을 넣은 베어벡호 골 퍼레이드는 좀처럼 멈출 줄을 몰랐다.

전반에만 2드움을 올린 '아시안컵의 사나이' 김두현은 후반 33분 페널티지역 왼쪽 외곽에서 캐년 곡사포 중거리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김두현은 아시안컵 예선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조재진이 후반 37분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차넣어 7번째 골을 뽑은 뒤 골 간치의 대미는 정조국이 장식했다.

정조국은 후반 43분 문전 돌파로 수비벽을 허문 뒤 골키퍼 푸룬치와 1대1에서 가볍게 네트를 갈라 자신의 A매치 첫 헤트트릭으로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선화 신인왕 꿈 이루다

## 올해 LPGA 우승 1회·준우승 3회 2위 미야자키와 점수차 커 확실시

### LPGA 역대 한국인 신인왕

1998	박세리(4승)
1999	김미현(2승)
2001	한희원
2004	안시현

'불부처' 이선화(20·CJ)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이로써 한국은 1998년 박세리(29·CJ), 1999년 김미현(29·KTF), 2001년 한희원(28·힐라코리아), 2004년 안시현(22)에 이어 다섯 번째 LPGA 투어 신인왕을 배출하게 됐다.

6일(이하 한국시간) 현재 신인왕 포인트 998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선화는 9일부터 열리는 존큐메멘스호텔클래스에는 불참하지만 2위(760점)인 미야자키 토 아이(일본) 역시 출전하지 않아 포인트 격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인왕 포인트를 부여하는 대회가 앞으로 두 개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야자키가 모두 우승을 차지하지 않는 한 이선화를 앞지를 수 없다.

미야자키에 불과 2점 적은 758점으로 3위에 올라 있는 이지영(21·하이마트) 역시 국내 대회 출전을 위해 이날 귀국, 포

인트를 부여하는 잔여 대회 출전을 포기하면서 신인왕 경쟁에서 물러났다.

4위(665점) 홀리메타 그라나다(파라과이)와 5위(650점)인 모건 프래셀(미국) 등도 남은 3개 대회를 모조리 우승하는 기록을 연출해야 이선화를 제칠 수 있다.

LPGA 투어에서도 "이선화가 신인왕을 놓칠 가능성은 0.0001%도 안된다"면서 신인왕 등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 최연소 프로 자격 취득과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이선화는 지난해 LPGA 2부 투어 상급왕에 이어 또 하나의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다.

이선화는 시즌 초반 3차례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신인왕 레이스에서 앞서가기 시작했다. 6월 솔라이트클래스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안으며 독주했다.

이선화는 7월 들어 체력이 떨어지고 손목 인대 부상까지 겹치면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해 미야자키에게 쫓겼지만

지난 4일 끝난 스테이트팜클래스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면서 추격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 9일부터 3일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시다리지골프장(파71·6천551야드)에서 열리는 존큐메멘스호텔클래스는 한국 선수 시즌 10승 무대가 될 지가 관심사다.

상승세에 올라 있는 '왕언니' 정임미(34·기아골프)와 한희원, 이미나(25·KTF), 임성아(22·농협한신) 등이 우승에 도전한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대회 3연패에 나선 가운데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크리스티 커, 플라 크리머(이상 미국) 등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시즌 10승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무서운 추풍'

## 추신수 연일 맹타 폭발 토론토전 5타수 3안타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방망이가 무섭게 폭발했다.

추신수는 6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방문경기에 우익수 겸 5번 타자로 선발출장해 5타수 3안타, 2득점, 1도루를 기록했다.

경기당 2개 이상의 안타를 때리는 '멀티히트' 행진을 2경기 연속 이어간 추신수는 시즌 3번째로 한 경기에서 안타 3개를 쏟아냈다.

시즌 9번째 2루타를 기록했고 타율을 0.275에서 0.290(107타수 31안타)까지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팀이 1-0으로 앞선 6회 초 2사 1루에서 메이저리그 다승 공동 선두(16승)를 달리던 우완 로이 할러데이가 3구째 던진 낮은 볼을 밀어쳐 좌익수 쪽 2루타를 만들었다. 그러나 후속 타자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 홈을 밟지는 못했다.

기세가 오른 추신수는 팀이 1-2로 뒤진 8회 1사 2루서 바뀐 투수 제레미 아카르도를 상대로 1루수 앞 내야안타를 때려 2-2 동점을 만드는 디딤돌을 쳤고 앤디 마르테의 만루홈런으로 득점에도 성공했다.

클리블랜드는 장단 11개의 안타를 터뜨려 7-2로 승리했다.

# "남자대회 출전 반대 많지만 개의치 않아"

## EPGA 출전 위성미 인터뷰

통산 10번째 남자프로골프대회에 출전하는 위성미(17·나이카골프)는 "남자대회 출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다.

7일부터 스위스 크랑몬타나의 크랑쉬에르골프장(파71·6천857야드)에서 열리는 유럽프로골프(EPGA) 오메가 유러피안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위성미는 대회를 앞두고 6일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여론에는 신경쓰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위성미는 "100%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그게 세상이지 아니냐"면서 "사람들이 지지해주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나 스스로

만족을 위해 남자대회에 출전하는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견지했다.

또 위성미는 "컷을 꼭 통과하고 싶다"면서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이와 함께 위성미는 21일부터 열리는 유럽-미국 골프대항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나도 그 대회에 (미국 대표로) 나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밝혀 '공국적인 목표는 PGA 투어 선수가 되고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것'이래던 포부에 한 가지를 더했다.

연습 라운드에서 작년 우승자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와 함께 플레이를 해봤다는 위성미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

다"면서 "연습 때 그린을 겪어보니 매우 까다로웠다. 참을성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르시아는 "위성미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라"면서 "쉬운 코스는 아니지만 위성미가 컷 통과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위성미는 니 도리티(잉글랜드), 곤살로 페르난데스-카스타노(스페인)와 함께 7일 오후 10시50분 1번 홀에서 1라운드에 나선다.

위성미는 이 대회에 이어 PGA투어 84립 버클래스, 그리고 일본프로골프 카시오월드오픈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